BNPP AIGCC Forum Report에서는 지난 포럼에서의 금융 가치사슬 관계자들 간의 토론 결과와 기후변화가 기업과 기술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대응, 금융섹터의 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역할을 살펴볼 수 있다.

누가 과거에 대한 보상을 할 것이고 누가 미래를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고 투자자들은 “Grow now clean up later”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섹터별 기후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그 규모와 기간, 그리고 대응방안으로써 금융섹터의 역할이 중요시되었다. 또한 기술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으로 도시화와 함께 증가하는 에너지 소비량과 그에 해당되는 탄소배출량이 논의되었으며 클라우드 컴퓨팅이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그에 대한 대응의 예로 제시되었다. 계속되는 기후변화의 물리적 영향에 따라 금융 가치사슬 관계자들은 지속가능성 투자의 ESG요소 반영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자산소유자들은 자산관리자들에게 환경 사회 지배구조 원칙을 따르는 것 이상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현상만으로도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하지만, 시장기반 매커니즘의 장기적 환경지속가능성 효과와 효율성은 아직 불확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나아가서 “The 2⁰ Target”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의 중요성이 언급되었고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국가들 간의 기술, 경제적 차이를 기술공유를 통해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환경 위기분석이 경영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칠 것이며 경영자와 투자자들의 성공요인에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추세라고 결론지었다.

.

.